

# 고흥유자·석류, 최고의 브랜드 3년 연속 대상 수상



고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고흥유자와 고흥석류가 '2021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지역특산물'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소비자 선정한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중앙일보 포브

## 소비자 지지율 바탕으로 최고의 브랜드 가치 입증 "우수성 홍보 주력해 소득 증대 이어지도록 노력"

스에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의 직접적인 리서치 참여로 74개 부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고흥유자는 전국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해풍과 온화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타 지역 생산품보다 과실이 크고 과즙도 많아 고품질 유자로 명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면역력에 큰 도움이 되는 유자가 재조명되며 유럽, 동남아 일대에 수요가 늘어 새로운 시장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고흥석류는 국내 생산량의 80%를 차지 할 만큼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값싼 수입산이나 타 지역 석

류보다 에스트로겐과 폴리페놀,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 칼슘 등 항산화 물질의 함유량이 높아 피부미용과 노화방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고흥유자와 고흥석류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3년 연속 영광스러운 대상에 걸맞게 고흥유자와 고흥석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보성군, 맞춤형 일자리 120개 창출·지원한다

보성군은 MZ세대부터 신중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120개를 창출·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MZ세대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이른다. 보성군은 이번 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전남도 등 일자리 분야 주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9억 원을 포함, 신규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으로 총 1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전남도) ▲전남 동행일자리사업(전남도) 등 3개 분야 총 84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우잡 청년 일자리사업(전남도), 지역 코로나19 방역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사업을 통해서도 36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경력형일자리)은 5070세대 중장년이 퇴직 이전 경력과 자격을 활용, 일자리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녹차밭 조성 향토시장 내 청년몰을 조성한다. 청년 창업기회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사업이다.

전남 동행일자리 사업은 전통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창업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확충해 지역민과 기업,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보성군 2020년 하반기 고용률은 72.2%로 2019년 하반기 대비 2.9%가 상승했으며, 고용상승률 측면에서 반기 2회 연속 전남도 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성=김택순 기자

## 여수시, 돌산·화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관광개발지역 숙박시설 증가 따른 대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

여수시는 최근 관광개발지역인 돌산·화양지구의 숙박시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광철 등 성수기를 대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돌산·화양지구의 오수처리시설 관리 상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 관리 실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광양시, 삼화섬 관광명소화 본격 착수

### 수상 복합공간 및 전망시설 등 도심권 수변 관광기반 조성

광양시가 민선 7기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월 중 '광양해비치로(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핵심공간인 삼화섬의 관광명소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는 것.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은 삼화섬을 중심으로 수상 복합공간

로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5대 교량(이순신대교 접속부, 마동·금호IC접속교, 길호대교, 금호대교)의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11월 착수한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사업은 광양만과 이순신대교 주변 친

##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성공 추진위해

### 2023년까지 총 55억원 투입...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전망시설 등 도심권 수변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 55억 원(도비 27억 5천만, 시비 27억 5천만)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뒤,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에 착공해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광양해비치로에 방점을 찍는 이번 사업은 시민에게 이색적인 해변 공간을 선물하는 한편, 관광객을 도심권으

수공간을 시민이 즐기고 관광객이 찾는 '감성 콘텐츠 거점'으로 만들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광양시 역점사업이다. 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이름과, 삼화섬-마동체육공원을 잇는 경관 육교 공식명칭을 각각 '광양해비치로', '해로름육교'로 확정하고 금호동-삼화섬을 잇는 무지개다리, 수변 전망타워, 삼화섬 정상부 정비 및 자연탐방로, 해로름육교 등의 조성을 완료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박차

### 시민 의견 수렴 후 전남도 협의...조례안 제정 등 행정절차 준비



순천시는 최근 오후 2시 순천한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시민,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11개 사업 중 최종 확정된 7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

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시설은 ▲에코존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등 7개 시설이다.

공청회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설립심의위원회 타당성 검토 심의, 지방의회 조례안 제출 시 검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설립 결정, 조례 제정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늘 제시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혁신으로 시민 행복 중심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